

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검증

장우정*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부교수

Study on the Influence of Growth Mindset of University Students on Occupational Engagement: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Woojung Jang*

Professor, Dept. of Airline Cabin Service Management

요약 본 연구는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 경기, 충청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여 최종 203개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5.0, AMOS 25.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했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측정모형을 평가한 이후 구조적 관계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성장마인드셋은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영향을 미쳤으며($\beta=.254, p<.01$)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적응성을 거쳐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37, p<.01$).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올바른 진로 안내를 위해 진로관여행동의 촉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의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 : 성장마인드셋,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 진로준비행동,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occupational engagement. A total of 203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ere used via SPSS 25.0 and AMOS 25.0 software. As a result of the study, growth mindset had a direct effect on occupational engagement ($\beta=.254, p<.01$)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on occupational engagement through career adaptability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a=.137, p<.01$).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promote occupational engagement for students' correct career guidance, and to this end a practical strategy for cultivating a growth mindset and career adaptability is needed.

Key Words : Growth mindset, Career adaptability, Occupational engage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1. 서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직업환경의 빠른 변화를 견인했다. 여기에 2019년 말 Covid-19 감염증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려했던 불확실성은 가속도가 붙었으며 새로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직업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현재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들은 대다수 IMF 이후 출생자들로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낯선 세대이며 급변하는 직업환경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1]. 앞선 이론과 같이 진로선택을 인간의 합리적 결정으로 간주하거나 [2] 예측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한 연구는 [3] 현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상황에 적용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며 변경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기르는 것과 직업을 준비하는 포괄적 활동이 모두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되었다.

전 생애적 주기로 보면 대학생의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력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가 되며 졸업 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4]. 최근 대학생의 진로행동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진로관여행동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이 중 진로관여행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진로환경에 적응하는 기회지향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5]. 또한 진로관여행동은 자신의 내적 심리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진로를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취업시장이 극단적으로 경직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중심이 되는 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과 접하게 된 지금의 대학생들은 진로와 직업 준비행동에 있어 실패 및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 및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개인의 마인드셋에서 찾을 수 있다 [6].

기존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은 학습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진로관련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Dweck은 성장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을 구분하여 주어지는 과제, 도전, 노력, 실패, 비판, 타인의 성취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상황을 어떤 성향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목표로 하는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7]. 급

변하는 진로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는 능력이 부각되는 이 시점에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인 진로적응성은 예측 불가능한 현대 진로환경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는 바 본 연구는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성장마인드셋

Dweck은 기존의 Implicit Theory를 실체이론과 증진이론으로 나누어 정의했다. 실체이론은 지능이나 성격 등의 속성이 선천적이며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증진이론은 노력여하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8]. 이후 Dweck은 실체이론을 고정마인드셋으로, 증진이론을 성장마인드셋이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성장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은 9가지 요인(목표, 노력, 도전, 실패, 과제, 피드백 및 비판, 타인의 성취, 자기개발, 동기양식)에 대한 태도 및 반응에 의해 서로 구별될 수 있다 [9].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변화 가능한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 학습목표(learning goal)를 추구하고 과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수행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며 비판적 피드백을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자신의 능력이 노력과 도전 여하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개발에도 열심이며 타인의 성취를 본받아 자신을 향상시키려 한다. 성장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적응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고정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지능과 능력은 변화될 수 없고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수행 목표(performance goal)에 초점을 맞춘다. 노력이나 도전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실패했을 경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성향을 보인다. 자기개발보다는 본인이 가능한 과업만 수행하는 성향을 보인다. 타인의 성취는 곧 자신보다 우월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덕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형

성을 하고자 노력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목적달성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 동기를 보인다.

2.2 진로관여행동

진로관여행동(occupational engagement)은 자아에 대한 인식 확장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행동을 폭넓게 포함시킨다. 진로관여행동은 진로에 대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탐색행동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로준비행동은 이미 정해진 진로나 직업에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준비행동을 하는 것이고 진로탐색행동은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각각 진로관여행동과 차이가 있다 [10].

Krieshok가 소개한 삼자모델에서는 진로에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직관과 이성뿐만 아니라 진로관여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관여행동은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폭넓은 행위이며 이것으로부터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확장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 진로관여행동은 기본적으로 정보탐색과 지식습득으로 이루어지는데 [12], 이는 진로에 관련된 사람과의 인터뷰, 진로 설명회 참석 등의 간접적인 행동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인턴 등의 직접적인 행동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된다 [13]. 이러한 진로관여행동은 자아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견인하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4].

2.3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1981년 Super와 Knasel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다변하는 직업환경에 대처하는 능력 및 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15]. 이 후 진로적응성의 개념은 업무에 대한 대비 및 예측하기 어려운 직업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16]으로 보완되었다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의 요구에 맞게 직업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17]. 이후 Savickas는 직업환경변화에 대처하며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진로적응성을 심리사회적구성으로 확장시켰다 [18].

환경과 사회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적응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중요도도 커졌으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을 일률적으로 측정할 도구의 정립은 어려운 일이다 [16]. 현재는 구성주의진로발달이론에 따라 미래준비에 대한 변인인 관심, 자기결정성 및 책임을 의미하는 통제, 자신과 진로에 대한 탐구를 나타내는 호기심,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등 총 4개의하위변인을 기준으로 각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

2.4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관계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진로환경의 변화가 크고 예측이 불가하여 진로행동에서 좌절과 실패를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원인은 학생들의 내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이고, 그중 Dweck은 성장마인드셋을 강조했다. 성장마인드셋이 있는 학생들은 실패를 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받아도 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성장마인드셋이 진로관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했다.

또한 진로 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불확실한 사회환경에서 진로적응성은 직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능동적 태도 [20]라고 볼 수 있고 성장마인드셋과 같은 개인의 인지, 심리적 특성 등이 진로적응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진로관여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 발현기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성장마인드셋은 진로관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

질 것이다.

H2: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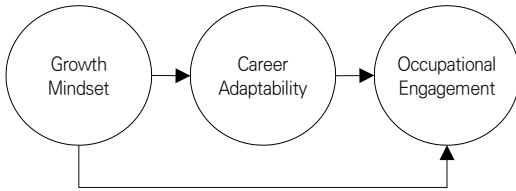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도 및 충청북도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온라인설문 링크배부 방법으로 배포한 후 일주일간 진행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 94명(46.3%), 여학생 109명(53.7%)으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년별 분포에서는 1학년이 92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3학년 60명(29.6%), 2학년 48명(23.6%), 4학년 3명(1.5%) 순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기존 선행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5점 Likert 척도 형태로 측정하였다. 먼저 성장마인드셋의 경우 Dweck(2006)이 개발한 8개 측정 문항 중 역문항인 고정마인드셋 4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성장마인드셋 4문항을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정도에 상관없이 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각자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그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고자 Maggiori, Rossier & Savickas(2017) [21]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등 총 4개의 하위변인, 모두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다양하게 제시된 다양한 역량 목록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발하였는지 수준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관심의 경우 “내가 해야 할 교육적, 직업적 선택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통제의 경우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 호기심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것”, 확신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는 것”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관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ensory, Siyez & Kalen(2021)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22]. 해당 척도는 단일차원으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다.” 등이 있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 버전과 AMOS 25.0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수집된 응답자료를 분석했다. 먼저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현황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변인의 분포와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진행된 연구모형 검증의 경우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회귀분석과는 달리 잠재변수를 사용하므로 측정오차를 통제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값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변수가 독립변수의 역할과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하여 매개변수 사용과 그 효과를 추정하기에 용의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검증법으로 진행하였다[23]. 1단계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요인분석 기반 측정모형 평가이다. 2단계는 연구변인 간 설정된 영향관계 검증을 통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분석결과

설문응답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성장마인드셋의 평균은 3.621점, 표준편차는 .726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의 경우 평균은 4.436점, 표준편차는 .625였으며, 진로관여행동의 경우 평균 3.836점, 표준편차 .696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대한 정규성 분석결과 일변량 왜도 절댓값 .321-2.098, 첨도 절댓값 .390-7.770으로 나타나, 비정규성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판단

하는 왜도 3, 첨도 10 이하 기준(Kline, 2005)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	SD	Skew.	Kurt.
Growth mindset	3.621	0.726	-0.401	0.390
Career adaptability	4.436	0.625	-2.098	7.770
Occupational engagement	3.836	0.696	-0.321	0.397

4.2 측정모형 평가: 신뢰도 및 타당도 검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수를 토대로 측정모형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확인적요인분석 모형의 전반적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164.629$, $df=110$, $p=.001$, $GFI=.912$, $AGFI=.878$, $NFI=.909$, $TLI=.960$, $CFI=.967$, $RMSEA=.050$, $SRMR=.064$ 과 같이 적절한 모형적합도 수치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진행된 신뢰도 평가의 경우 일반적인 내적일관성 평가 지표인 Cronbach α 와 함께 복합신뢰도(CR)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Cronbach α 의 경우 성장마인드셋 .711, 진로적응성 .951, 진로관여행동 .863 등 일반적인 적절성 판단 기준인 0.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신뢰도의 경우는 성장마인드셋 .718, 진로적응성 .928, 진로관여행동 .873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적합 판단 기준인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위 결과는 표 2와 같다.

타당도의 경우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두 차원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합신뢰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이 적합 판단 기준인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25].

이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출된 분산 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변인 간 상관관계 비교 검증법을 활용하였다 [26].

해당 방법은 변인 간 상관관계 크기와 각 잠재변인의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곱근(\sqrt{AVE})을 비교하여,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곱근이 큰 경우 판별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적응성과 .289, 진로관여행동과 .39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진로적응성은 진로관여행동과 .54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 변인 간 상관관계는($r=.289-.549$) 각 잠재변인의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곱근($\sqrt{AVE}=.660-.874$)보다 작으므로 판별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2. Result of measurement model test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β	t	α	CR
Growth mindset (GM)	GM1	.916	5.499***	.711	.718
	GM2	.786	5.723***		
	GM3	.288	3.960***		
	GM4	.421	-		
Career adaptability (CA)	Concern	.828	16.235***	.951	.928
	Control	.837	16.636***		
	Curiosity	.916	20.235***		
	Confidence	.911	-		
Occupational engagement (OC)	OC1	.579	5.987***	.863	.873
	OC2	.648	7.612***		
	OC3	.617	7.333***		
	OC4	.630	-		
	OC5	.634	7.490***		
	OC6	.602	6.464***		
	OC7	.674	7.767***		
	OC8	.746	7.644***		
	OC9	.786	8.658***		

Note: β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t=t value, α =Cronbach α , CR=composite reliability.

***: $p<.001$

Table 3.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test

Variables	1	2	3
1. Growth mindset	(.655)		
2. Career adaptability	.289	(.874)	
3. Occupational engagement	.391	.549	(.660)

Note: diagonal values in round bracket indicating square root average variance extracted of the each construct; all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p<0.01$ level

4.3 구조모형 검증: 변인 간 영향관계

구조모형 검증은 앞서 측정모형을 통해 적절성이 검증된 연구변인 간의 경로모형과 유의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 검토 결과, $\chi^2=164.629$, $df=110$, $p=.001$, $GFI=.912$, $AGFI=.878$, $NFI=.909$, $TLI=.960$, $CFI=.967$, $RMSEA=.050$, $SRMR=.064$ 등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경로분석 결과,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적응성 ($\beta=.289, p<.001$)과 진로관여행동($\beta=.254,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적응성 또한 진로관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6, p<.001$).

Table 4.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β	SE	CR	p
GM → CA	.289	.128	3.255	.001
CA → OE	.476	.094	5.831	.001
GM → OE	.254	.140	3.029	.002

Note: GM=Growth mindset, CA=Career adaptability, OE=Occupational engagement, β =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p=p value

각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이후 영향관계의 강도를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와의 모수 추정과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직접 효과의 경우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경로는 $\beta=.289 (p<.01)$ 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적응성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76, p<.001$).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영향($\beta=.254, p<.01$)을 미쳤고,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적응성을 거쳐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매개(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37, p<.01$). 즉 진로적응성은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 간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Direct, indirect & total effect

	GM			CA		
	DE	IDE	TE	DE	IDE	TE
CA	.289**	-	.289**	-	-	-
OE	.254**	.137**	.391***	.476**	-	.476***

Note: GM=Growth mindset, CA=Career adaptability, OE=Occupational engagement, DE=direct effect, IDE=indirect effect, TE=total effect.

* $p<.05$, ** $p<.01$, *** $p<.001$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진로환경에 놓인 대학생의 순조로운 진로 전환과 적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성장마인드셋이 진로관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신의 능력을 변화 및 성장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개발에 힘쓰며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필수로 여기는 성장마인드가 장착된 학생일수록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광범위한 진로관여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둘째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적응성의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진로적응성이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마인드셋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성장마인드셋과 같은 개인의 능력 혹은 성향이 진로적응성의 심리적 자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진로발달은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과적으로 진로적응성이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적 성향인 성장마인드셋이 적극적인 진로관여행동을 위한 하나의 요인인 것을 검증했으며 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이 진로관여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 대상자가 서울과 경기, 충북소재의 대학으로 한정되었으며 취업과 가장 관련이 높은 4학년의 비율이 너무 낮았다. 또한 전공분야에 따라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적응성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의약학, 법학, 교육학 등 대학에 들어와서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과 대학

진학 시부터 항공이나 호텔 등 실무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진로준비의 태도, 기간 및 방향이 서로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단위로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공별로 나누어 연구를 한 후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진로연구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성장마인드셋의 역할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관여행동으로부터 올바른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계를 보완하여 학생들의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키고 직로적응성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S. R. Lee & K. H. Lee (2019), The Relation between Openness to Experienc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3), 201-222. DOI : 10.32341/JCER.2019.09.32.3.201

[2] Robert G. L. Pryor & Jim E.H. Bright (2003), Order and chaos: a twenty first century formulation of career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2,) 121-128. DOI : 10.1080 / 00049530412331312984

[3] Paul J. Hartung & David L. Blustein(2002), Reason, Intuition, and Social Justice: Elaborating on Parsons's Career Decision -Making Mode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1), 41-47. DOI : 10.1002 / j.1556-6678.2002.tb00164.x

[4] O. H. Choi & B. W. Kim, (2006) Career Optimism and Adapt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Validation Study of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CFI),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7(3), 821-833

[5] Cox, D. W. (2008), *The operationalization of occupational engage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6] H. M. Kim & A. R. Choi,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25(1), 129-144. DOI : 10.55586/kewms.2022.25.1.129

[7] Dweck, C. S.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NY: Random House.

[8] Bandura, M. M., & Dweck, C. S. (1985). *The relationship of conceptions of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goals to achievement-related cognit on, affect and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9] M. J. Kim (2019),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Happines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10] M. N. Jung & E. J. Yang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Occupational Eng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9), 47-70.

[11]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12] Cox, D. W., Bjornsen, A. L., Krieshok, T. S., & Liu, Y. (2016). Occupational engagement and academic major satisfaction: Vocational identity's mediating rol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4(2), 169-180

[13] C. Y. Jeong (2021),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he Occupational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Typ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14] Holland, J. L. (1996). Exploring careers with a typology: What we have learned and some new directions. *American psychologist*, 51(4), 397.

[15]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 [16]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17] S. E. Kwon & J. A. Ahn (2020),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2), 67-88 DOI : 10.32341/JCER. 2020.6.33.2.67
- [18]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 [19] J. K. Kim & K. H. Lee(2016),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Adaptability and Occupational Engagement: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3), 205-223
- [20]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1, 42-70.
- [21] Maggiori, C., Rossier, J., & Savickas, M. L. (2017). Career adapt-abilities scale-short form (CAAS-SF) construct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2), 312-325.
- [22] Şensoy, G., Siyez, D. M., & Kalen, S. (2021).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student: Psychometric properties in Turkish university students.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64-71.
- [23] J. C. Anderson & D. W. Gerbing.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 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53-460.
- [24]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25]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R. L.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Education International.
- [26]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장우정(Woojung Jang)

[정회원]



- 201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영어학과 (영어학 석사)
- 201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11년 3월~현재 :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지식경영, 항공경영, 마케팅
- E-Mail : jangwj23@gmail.com